

이재명 “檢 구속영장,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

기자간담회서 부당성 역설...체포안, 오늘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민주 지도부 “야당 파괴하려는 기획수사 공감대...압도적 부결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여론전에 주력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진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은 정부의 체포동의안 송부를 맹비난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오늘 회견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나 구속 시도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당내 의원들에게 개별 편지는 물론 SNS 메시지로도 체포동의안 송부의 부당함을 역설한 바 있다. 지도부도 연일 ‘압도적 부결’ 여론전을 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공권력을 사유화해 오직 정적 죽이기와 야당 탄압을 위해 작

성한, 삼류 추리소설보다 못한 작품”이라며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그리고 압도적으로 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두고 정부·여당은 ‘이재명 방탄’이라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라며 “(여권의 주장은) 강도가 칼을 들고 집에 들어와 도둑질하는데 위험하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진명(진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거리가 있던 의원들도 검찰 수사가 야당을 파괴하려는 기획수사라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이 대표 표 규모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고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라디오에 나와 “윤석열 정권 9개월간 이재명 대표의 오만 군데를 칼로 찔렀지만, 피도 안 나온다. 증거가 없다”며 “체포동의안은 100% 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명(비이재명)계도 다수가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부결 이후 이 대표가

자진사퇴 등 향후 거취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의 이른바 ‘쫓개기 영장’ 청구로 또다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날아들 경우 당도 더는 방패막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당내에선 검찰이 쌍방을 대북송금이나 백현동 개발 등 이 대표와 관련된 추가 의혹에 대해 제차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날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권노갑 고문이 이 대표에게 “다음번에는 멋있게 선당후사하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됐다. 비명계 조종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지난 의원총회에서 한 분(전재수 의원)은 부결시키자면서도 내년 총선을 위해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것은 이번에는 부결을 시키되 이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냐는 주장”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결 후 시나리오들을 두고 대표의 거취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부결 이후 대표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정부 쌀 시장 의무개입 기준 완화 수용”

양곡관리법 개정안 의장 중재안, 27일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무개입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단독 처리에 대한 우려로 수정 의견을 전달했다”며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의 수정안을 오는 24일이나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정안은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안보다 정부 재량권을 넓힌 게 핵심이다. 당초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이 ‘쌀 수요 대

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 등이었지만, 이를 ‘초과 생산량 3~5%’, ‘쌀값 하락 폭 5~8%’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구간 내에서 시행령을 통해 시장격리 의무화 기준을 선택할 수 있어 재량권이 넓어진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아울러 벼 재배 면적 증가로 쌀 생산량이 증가하면 정부 의무 개입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쌀 생산량이 늘어날 때 예외적으로 시장 격리 물량을 축소할 수 있게 조치하는 재량권을 정부에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성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시장 격리 조건

을 기존보다 완화하는 의장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에게 ‘뭉’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수용한 것”이라며 “정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김 의장이 국민의힘에도 같은 내용의 제안을 했고, 아직 답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조속히 답해달라”고 여당에 촉구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 및 여당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농해수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여당 소속 위원이 60일 넘게 법안을 처리하지 않자 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직회부를 의결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신정훈(나주하순) 국회의원은 “이제 정부가 합리적이고 합당한 입장을 내놓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국회의장 ‘비례대표 50명 증원안’ 제시

정개특위, 심사 방침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비례대표 의석 대폭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제출했다. 23일 국회의장실과 정개특위에 따르면 자문위는 전날 정개특위에 총 3가지 개편안을 냈다. 3개 안은 차례로 ▲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도

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첫번째 안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배분을 예전 방식대로 전국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는 것이다. 두번째 안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따르되 위성정당 출현 방지 방안이 포함됐다. 세번째 안은 대도시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 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여기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했다. 특히 첫번째와 두번째 안은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이다. 이 경우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어난다. 세번째 안의 경우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되 지역구 의석을 다소 줄여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비례성을 강화하려면 현행 47석은 너무 적으니 아예 50명을 더 늘리자는 게 핵심”이라며 “또한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제 채택을 정개특위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전날 자문위 안을 회람했으며 이날 오후 열리는 정치관계법개편소위원회(2소위)에서 본격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지방정가 라운지

“느리지 관광사업 지자체 균형있게 추진해야”

나광국 전남도의원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민주-무안 2)은 최근 전남도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영산강 느리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효과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영산강 느리지 일대는 국내 대표적인 한반도 지형으로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한반도 지형보다 강폭이 500~600m 이상 더 넓어 여행객들에게 입소문이 난 관광 명소다. 행정구역은 무안이지만 여행객이 주로 찾는 전망대는 나주에 자리잡고 있다. 전남도는 정부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에 영산강 느리지 개발사업을 반영하고, 국비를 확보해 수변 힐링공원 조성 등 관련 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자치단체별로는 무안군의 경우 느리지 수변 힐링공원을 조성하는데 151억원을 요청했고, 나주시는 복합미디 어 전망대와 쪼리인 설치에 필요한 180억원의 국비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나 의원은 “한반도 지형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대가 나주에 조성돼 관광 사업의 투자와 성과가 나주에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주민들 사이에서 나온다”며 “전남도가 양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이 공평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짜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징크판넬시공



창호(삿시)교체



목상стил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